

광주·전남 취임 1년 인터뷰

“유유녹명으로 소통-협치 앞장”

“협치의 출발은 밀도있는 사전소통” 강조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은 25일 “밀도있는 사전소통이 협치의 출발이라는 신념과 유유녹명의 정신으로 더불어 잘 사는 광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제9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광주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한 다짐과 양보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일하고 공부하는 문화를 확고히 뿌리 내리고, 의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의회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가 남을 임기 내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성과 2~3가지만 꼽는다면.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 의회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고 본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았고, ‘할 말은 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고, 전국 우수조례 3관왕 등 입법 측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수소 트랩, 2038 아시안게임, 공공기관 통제합 등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며 속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문화가 변화된 점도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의정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제도과 시민 참여, 소통 문제가



정무장 광주시의장

아닐까 싶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반쪽 인사권’이 빠져진 한계다. 시민참여도 아쉬움이 컸다.”고 밝혔다.

—집행부와의 소통문제가 종종 도마에 올랐는데.

“협치의 출발은 ‘밀도있는 사전소통’이다. 끊임없이 소통할 생각이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의안은 현장에 답”

“생활밀착 의정·전남권 의대 설립 내부 역량 총결집”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25일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 극복, 국제행사 성공 추진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목표 실현에 전력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인 서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장은 지난 1년 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간담회 122건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성과로 들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광주 군공항 전남권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1년 동안 전남도의회 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의정정책 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됐다. 더불어 지난 1년 간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6월 기준으로 총 122건 개최했다. 이는 11대 전반기 2년의 기록인 100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할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뿌듯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장

—전남지역 의과대학 유치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의료 취약지역 전남의 경우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 반드시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대학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에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국회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할 것이다. 절박성과 결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비상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꿈 실현에 행정력 올인”

“미래교육 365스터디룸·인공지능 교실 조성 박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5일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부터 먹는 것, 대외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한 체험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사들은 수업을 잘하고, 학생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는.

“방학 중 무상급식 등 일부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절했고 365스터디룸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한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호공약인 ‘방학 중 무상급식’이 무산됐다. 재추진 계획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교육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철학이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실에서 먹거리부터 책임을 지고 싶어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했는데 실현되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다. 급식과 관계된 모든 개인,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방학중 무상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도 프로그램에 넣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창의성을 갖춘 민주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민주·인권, 평화·통일, 역사·문화, 인공지능(AI)·IT, 언어일반, 문화·예술, 진로·직업, 해외 봉사 등 총 1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난 3월에는 광주의 학생들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인종 차별 없는 세상’

“작은학교·다문화 다양성 미래 경쟁력”

“독서인문·글로벌·지역사회 교육 협력 정착”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25일 “전남은 작은학교와 다문화 학생의 다양성이 미래교육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각 학교에 인성·예술·교육·체육·인공지능(AI) 등의 특색화가 부여되면 서울 등 도심 학생들이 찾아올 것이다”고 자신했다.

김 교육감은 “민관산학협력위원회 출범이 학교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작은학교 감소로 인해 작은학교가 늘고 있다. 대안은.

“전남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100여년 역사의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심은 과밀학급이 문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유학프로그램이 지난 2021년 100여명에서 현재는 400여명으로 늘었고 단기 체류형에서 장기 정주형으로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던 작은학교 유학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근의 작은학교 3~4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다문화 학생도 늘고 있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과감하게 도입해 시도하고 학생들이 전남에서 취업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국제직업학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광주시-시의회, Y벨트 8km 수변길 동행 “함께 갑시다”...민선8기 1주년 걷기행사

민선8기 광주시와 제9대 광주시의회가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 수변길을 걸으며 ‘새로운 광주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에 함께 하기로 의기투합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영산강 수변길에서 강기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 정무장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선8기 광주시 출범과 제9대 시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무장 의장이 강기정 시장에게 제안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 권역 와이(Y)벨트 사업이 구현될 영산강·황룡강 인근과 군공항 부지 주변 등 영산강 수변길 8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를 친환경·힐링공간으로 탈바꿈하는 Y벨

트 사업을 통해 365일 재밌고 활력 넘치는 광주 구현에 힘쓰고 있다. Y벨트의 Y는 영산강,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을 형상화한 것으로,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일상을 보내며 즐기고 경험하는 ‘광주시민 행복 프로젝트’다.

걷기에 앞서 시와 시의회는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블루박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집행부와 시의회는 지난 1년 간 민생경제 살리기는 물론 ‘새로운 광주’를 위한 혁신의 길에 함께 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힘을 보탬 일이 있으면 서로 적극 협력했다”며 “시와 시의회가 진정한 개혁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정무장 의장은 “앞으로도 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눈에 보이는 광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김도기 기자

‘출범 1년’ 북구시설공단 업무처리 도마 북구 출자 지방공기업...첫 점검서 주의·시정 43건

광주 북구 출자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17개월을 맞았지만 어설픈 업무 처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북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북구는 산하공기업 지도 점검에서 확인한 주의·시정 사항 43건 내역을 공단에 통보했다.

최근 북구는 공단이 공식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처리 내역 전반을 들여다봤다. 산하공기업에 대한 첫 지도 점검이다.

점검 결과 내부 규정과 예산 범위를 어긋난 각종 수당 지급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관리 규정에 없는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시간 외 수당이 규정 내 한도를 벗어나 과다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퇴사자에게 가족 수당을, 공단 사무실 근무자에게 ‘파견’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지적됐다. 지출 세부내역서·결의서·매출전표 서명 날인 누락 등 기본 회계 업

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채용 서류 보관 미흡, 여비 부적정 지급, 물품 관리 소홀(수급관리계획 수립·전산화 지연), 주요 계약 업무 일상 감사 미 실시 등도 지적 사항에 올랐다.

공단 본연의 시설 운영·관리 위탁 사무도 미흡했다.

종량제봉투 등 수입 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위탁관리 문화·체육시설의 공공요금·물품 임료(렌탈비) 납부가 밀린 사례도 있었다. 주차요금 일일 결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위탁 시설 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구의회에서는 ‘복무 관리·회계 등 기본 행정 업무도 안 되는 것이냐’, ‘폐기물 수거·처리 업무 등 3단계 사업 위탁을 앞두고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 등 우려 섞인 질타가 이어졌다.

공단 측은 현실적인 업무 여건과 수당 내규 간 괴리, 증빙 서류 일부

(수당 지급 사유 기재) 관리 미흡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족 수당이나 파견 근무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환수 또는 내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회계, 근로계약서 작성·채용서류 구비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개선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일직간지 체 1년이 되지 않아, 조직 구성과 인수인계, 공단 운영 업무까지 병행하다 보니 미흡함이 있었다”며 “지도 점검 내용 대부분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